

[두산아트스쿨: 미술]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II (정윤아)

11/10 4강 자코메티: 고독의 상징을 조각하다

강의 개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불운한 세대의 예술가들에게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우리의 삶이 덧없다는 것,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평생 죽음에 천착하고, 그럼으로써 생을 찬미했던 영국의 표현주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여기 그에 견줄 만한 위대한 예술가가 또 한 명 있으니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존경받는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시간에는 고독과 공허로 응집된 듯, 가늘고 기다랗게 늘려진 인물 형상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을 환기하는 자코메티의 예술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1) 고향을 떠나 파리로: 초현실주의에 입문

당대 제법 이름을 날린 화가 아버지의 영향 탓인지 그는 어려서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재능도 남달랐다.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그의 관심사는 조각이었다. 13세 무렵에 동생 디에고를 모델로 제작한 조각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 이를 계기로 일찍이 예술가가 되고자 결심한 그는 스물한 살이 되던 해에 고향인 스위스를 떠나 파리로 이주한다. 처음에는 당시 크게 유행하던 꿈과 환상을 쫓는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아 상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에 몰입했다. 1930년대까지 이어진 이 시기의 핵심 주제는 죽음과 성이었다. <허공을 잡는 손과 상상의 오브제>(Hands Holding the Void and Imaginary Object, 1934-5)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응시와 터치 관계 및 만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의 섬세한 감각을 일깨우는 훌륭한 작품이다.

2) 작은 크기의 인물 조각들

초현실주의 조각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상상이 아니라 실재를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끼게 된다. 인간이 맞닥뜨린 생의 진실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실제 인물을 모델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부 10센티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였다. 심지어 손톱만 한 작품도 있었다. 왜 그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자신이 보는 실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일까? 물론 조각에 있어서 크기가 유일한 평가 요소일 수는 없다. 그러나 자코메티의 경우, 사람이나 그 이상의 크기로 확대된 조각의 뛰어난 완성도와 예술성 및 강렬한 인상 등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하다.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작은 크기의 인물 조각을 제작했다.

3) 대표적인 스타일의 조각 등장

그의 작품이 크게 확대된 것은 1947년경에 이르러서였다. 일례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 (L'Homme au doigt, 1947)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품은 소형 조각에서 폭발적으로 사이즈가 커지면서 창작열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제작되었다.

연약한 듯 가느다랗지만 똑바로 곧게 서 있는 남자. 왼팔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무엇을, 왜 가리키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작품을 보는 관객의 해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고독으로 온몸이 깎인 채,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이 남자는 마치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골 같기도 하다. 실제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닌데, 이보다 더 실재적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존재가 불가능하기 바로 직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몰린 인간의 자화상에 견줄 만하다. 이 작품 하나만 보아도 두 번의 대전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 인간 앞에 다시 놓인 생과 그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한 샤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80)와 그가 돈독한 관계였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는 사실상 자코메티 예술의 가장 열렬한 숭배자의 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책 『존재와 무』(L'Être et le néant, 1943)에 빗대어 그의 조각은 언제나 '무와 존재 사이'에 있다고 말하곤 했다.

4) 인간 조건에 대한 탐구

인간의 조건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매달린 그는 같은 주제를 심도 있게 반복적으로 탐색하기를 선호했다. 그래서 그의 모델은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자코메티가 가장 좋아한 모델은 동생 디에고와 부인 아네트였다. 사실, 여러 모델을 쓰기도 어려웠다. 오랜 시간 꼼짝 못 하게 하는 데다가 모델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등 그는 모델에게 요구사항이 많은 몹시 까다로운 예술가였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다면 이런 고통을 감내할 모델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5) 자기비판적 성향

완벽을 기하는 그의 작업에서 엿보이듯이 자코메티는 상당히 자기비판적인 예술가였다. 작품에 실재를 반영하는 데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것이 그가 동일 주제 및 비슷한 형태의 작업에 반복적으로 매달리고, 20,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작업한 이유이다. 그의 또 다른 절친이었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1906-1989)의 말처럼 그는 실패했고, 더 낮게 실패하기 위해 다시 도전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그는 미술 역사상 가장 많이 실패했고, 그래서 가장 성공한 예술가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65세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쉽 없는 자기 질책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그에게 생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그는 더 낮게 실패하기 위해 도전하는 예술가가 되었을 것이다.